

몸으로 체험하는 '꿈의 도서관'

상남도서관·사회과학도서관 등 전자도서관 실현

전자도서관이 국내에서 본격적인 논의대상이 된 것은 지난 4월 LG상남도서관(관장 오종희·종로구 원서동)이 개관하고부터다. LG그룹 구자경 명예회장의 사저를 기증받아 '과학기술분야 전자도서관'으로 시작한 상남도서관은 미래 도서관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나마 실현한 셈이다.

과학기술분야 정보전산망 갖춰

상남도서관은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지하에는 DB 제작실이, 1층에는 방문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검색실, 전문정보검색사들이 회원들의 정보검색을 도와주는 정보상담실, 백과사전 등 참고자료를 CD롬으로 찾아볼 수 있는 참고정보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2층에는 100인치 스크린과 50석을 갖춘 세미나실을, 3층에는 해외 학·협회의 비디오 자료를 볼 수 있는 영상자료실을 갖추었다.

정윤석 부관장(40)은 "현재 화학·전자 분야 이용률 상위에 올라 있는 잡지 1천여종을 비롯, 논문 30만편을 원문 그대로 회원 1만3천여명에게 전산망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도서관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기능을 포기하고 정보서비스에만 집중한 형태가 지금의 상남도서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성과가 매우 빨리 변하고 정보범위 또한 넓어야 하기 때문에 전자도서관의 성격과 잘 어울리는 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체 프로그램을 컴퓨터

에 깔아야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불편함, 비디오 자료는 꼭 방문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WWW(World Wide Web)을 통해 어느 컴퓨터에서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중"이고, 장기적으로는 비디오 자료도 화상으로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상남도서관의 포부다.

상호대차 서비스 이뤄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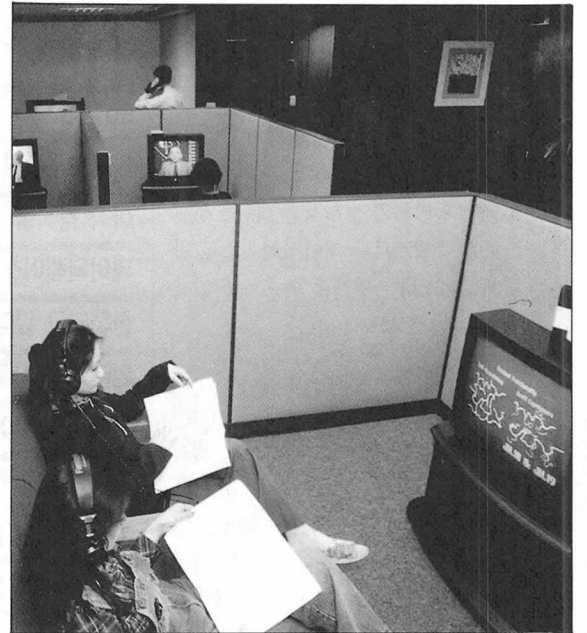
지난 83년 문을 연 사회과학도서관(관장 이영주·종로구 사직동)도 디지털 환경을 갖추어 이용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92년 소장자료 목록을 전산화하기 시작, 94년 5월부터는 2년간의 성과를 일반 이용자들에게 공개했다.

2층의 정기간행물실과 3층의 참고열람실을 중심으로 전자화를 시도했는데, 현재 미 의회도서관·세계 주요대학 도서관의 소장자료 목록을 구비하고 있다. 외국 정기간행물 가운데 경제·경영분야 1천2백여종, 사회학 분야 1천7백여종, 법학 분야 620여종의 정기간행물 색인 및 초록을 데이터 베이스 해 놓았다. 원문을 받아볼 수 있는 것도 경영학 분야 500여종의 저널과 사회과학 분야 저널 가운데 210여종이나 된다.

"정기간행물 목록이나 각국의 도서관 자료 목록은 어느 곳이나 일반화되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원문입수라는 게 이주호 실장(39)의 말이다. 전자도서관 환경에 맞는 저작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실제로 원

'꿈의 도서관'으로 불리는 전자도서관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서고 있다. 지난 4월 문을 연 LG상남도서관은 과학기술분야 전자도서관으로 미래 도서관의 모습을 실현하고 있고, 사회과학도서관도 디지털 환경을 갖춰 획기적인 정보전자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지난 4월 개관한 원서동의 LG 상남도서관.



문을 받아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사회과학 관련 정기간행물 및 논문의 목록을 주제별로 색인한 다음, 소장자료의 형태가 종이책·마이크로필름·CD롬으로 표시돼 서가에서 곧 찾아볼 수 있는 것은 획기적이다.

"찾는 자료가 상호대차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우 어느 도서관에 있는지까지 표시했지만 온라인망이 구축되지 않아 직접 찾아가야 한다"며 온라인망을 통한 상호대차서비스도 곧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남도서관이 회원자격을 석사 이상의 과학·기술 전공자, 교수, 공·사립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제한하는 데 비해 사회과학도서관은 대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어 이용하기가 훨씬 쉽다. 또 시기별로 종이책 자료와 CD롬·마이크로 필름 등을 완전 개가식으로 찾아볼 수 있게 해 전자도서관으로 가는 중간단계를 몸으로 경험할 수 있다.

전자화가 피할 수 없는 도서관의 변화방향이라면 활성화를 위해서 저작권 문제와 자금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게 전자도서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 상남도서관의 경우, 이미 50억원을 들였고 매년 13억원씩 투입할 예정이지만 더 많은 자료와 기술을 모으려면 그 정도로는 어렵다. 관계자들은 저작권이나 자금문제의 공통적인 대안으로 미국과 일본과 같이 국가 주도의 전자도서관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현주 기자

가치와 인격: 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 윤리학

이을상 지음/224면/7,500원/철학박사학위논문12

한편으로는 칸트의 형식주의적 윤리학의 전제를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상학적 방법을 윤리학에 적용시킨 막스 셸러의 실질적 가치 윤리학을 "가치"와 "인격"이라는 두 지주(支柱)를 통해 고찰한다.

루소 칸트 괴테

E. 캣시러 지음/유철 옮김/160면/5,500원

캣시러라는 현대의 위대한 철학자에 의해 근세의 중심적 사상가인 루소, 칸트, 괴테 사이의 인격적·철학적·윤리적 영향성이 비교됨으로써 18세기의 사상적 흐름이 묘사되며 철학, 정치, 문학의 연계성이 드러난다.

고뇌하는 현대인을 위한 윤리학 강의

정인화 지음/320면/10,000원/윤리학 입문서

윤리학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윤리학 입문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윤리 주제인 혼전 순결, 혼외 정사, 성희롱,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녹색 윤리 등의 문제를 풍부한 사례와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전체 지식론의 기초

J.G. 피히테 지음/한자경 옮김/304면/12,000원/양장

독일 관념론의 장을 연 철학자로 평가되는 피히테의 원전. "지식론"으로 대변되는 피히테의 철학 체계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책으로, 칸트와 헤겔의 교량 역할을 하는 피히테의 사상이 심도 있게 전개된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